

뉴질랜드 아시아인의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요약서

의뢰처

Mental Health Commission

Elsie Ho, Sybil Au, Charlotte Bedford and Jenine Cooper
Migration Research Group,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Waikato

서론

이것은 Mental Health Commission 이 의뢰한 보고서, “뉴질랜드 아시아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Mental Health Commission 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발표한 첫번째 연구서입니다. 현재까지 아시아인과 그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해 온데 반해, 뉴질랜드 사회에서 아시아인의 인구는 괄목할만큼 증가하고 갈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인들은 별 무리없이 뉴질랜드 사회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교육 수준과 직업 성취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과 이혼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시아인들이 잘 적응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면에서 양호하다는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현재의 정신과 의료 서비스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아시아인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아시아인의 인구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자원 부족때문에, 본 보고서의 통계학적 분석은 중국, 인도, 한국, 캄보디아, 그리고 월남 등 5 개국에 한정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신규 이민자들과 난민들 그리고 아시아인 유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취급합니다.

사회경제적 측면¹

뉴질랜드 아시아인들은 종교, 문화, 언어, 교육 그리고 사회경제적 경험이란 측면에서 무척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아시아 이민자들은 영어로 인한 원활한 의사 소통의 한계, 천차만별인 교육수준, 총 인구의 평균 보다

¹ 해당 정보는 뉴질랜드 통계청의 고객서비스과가 2001년 인구 및 거주 센서스에서 발췌한 미출판 자료 파일로부터 취합한 것입니다.

2 배이상 높은 실업률, 평균 이하의 소득, 그리고 유년 및 청소년층이 많은 연령 구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의 문제 및 난관들

Mental Health Commission 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지않은 뉴질랜드 아시아인들이 뉴질랜드 생활에 적응하면서 아래의 문제들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즉:

- 언어 문제
- 취업 문제
- 가족의 분산을 포함한 가족 관계의 단절과 이에 대한 사회 지원 네트워크의 미비
- 누적되는 스트레스 (하나의 문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 접촉을 갖게 되는 경우 파생되는 스트레스를 일컫습니다)
- 이민 국가의 현지인들로부터 받는 비우호적인 대접
- 이민 전에 경험하는 정신적 충격 – 여기에는 심각한 정신적 고뇌와 번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민 후에 뒤따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추락

정신 질환율은 어떻게 비교되는가?

한정적인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아시아인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뉴질랜드 일반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령의중국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난민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PTSD)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데 장애요인들

문화적으로 아시아인들은 정신 질환을 대단히 치욕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아시아인들이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시아 신이민자들 가운데는 영어 소통의 장애, 정신 질환 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그리고 정신 질환의 평가와 치료에 대한 문화적 차이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안들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일반인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민이 긍정적인 경험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를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신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민국 사회가 보여주는 우호의 정도와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이민 전과 후에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취업, 주택, 교육, 언어 훈련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관계 수립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문화적인 수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안들

- 교육 자료와 전문 통역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고취
- 아시아권의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력 증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위험성 높은 그룹

- 여성들
- 학생들
- 노인들
- 난민들